인간답게 떠나려면

이타적 유전자

손필영
시인·국민대 교수

전국 최고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봄날씨를 보인 22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평화누리공원에 산수유꽃이 피어있다. 파주=뉴시스

춘분이 지났다. 이제부터 해지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다. 봄기운이 번지면서 해가 길어지면 어딘가 술렁거리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지상의 자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라고 말했을 것이다. 지상의 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 살아있는 감각과 지식을 느끼고 배우라는 말일 것이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은 즐거움이다.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여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생겼다. 그녀는 쾌활한 성격인데 어머니 문제로 어두워질 때가 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평생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면서 치매가 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침 수업을 해야 해서 바쁘게 집을 나와야 할 때는 여간 곤란한 게 아니라고 한다. 자신을 위해 평생 헌신한 엄마를 자신도 모르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자책한다고 한다.

며칠 전 파주의 요양원에서 치매노인이 입원한지 20여일만에 다른 노인들에게 구타당해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인터넷으로 그때의 CCTV를 찾아 보았다. 그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폭행한 노인들은 몸이 자유로워 보였다. 돌아가신 노인이 너무 안됐고 가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었다. 치매 노인이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요양원들은 이를 배려할 여력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은 언젠가는 늙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는 노령인구가 많아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 한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각 나라들은 노인복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고민이 많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복지시설의 질적, 양적 수준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OECD는 앞으로 증가하는 노인 돌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세금 인상과 노동기간의 연장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 예측 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동의하지 않은 노인복지 비용 마련은 젊은이들의 부담으로만 작용할 것이다.

노인이 젊은이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노인이 바뀌어서일지도 모른다. 어른이라면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 사회에 어른이 사라진 지 오래이니 어른이 없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노인을 존중하겠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시, 러디어드 키플링의 '만일(If)'을 좋아한다. 그 시는 어른이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는 조건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어른은 그래야 한다는 것으로 읽고 싶다. 모두가 비난할 때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남들이 자신을 의심할 때 자신을 신뢰하고 그들의 의심도 너그러이 생각할 수 있다면, 미움을 당하더라도 미움을 피하지 않으며 너무 선한 체도 현명한 체도 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없는 순간을 달음질 60초로 채울 수 있다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앙드레 지드는 1897년 '지상의 양식'을 처음 쓰고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935년에 '새 양식'을 발표한다. '새 양식'에는 개인적인 시선이 공동체를 향한 시선으로 바뀐다. 여행을 통한 자양분은 사람을 성숙시킬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상의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어른이 되고, 이를 쌓아 열매인 노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 위에는 너무나 많은 가난과 비탄과 어려움과 끔찍한 일들이 가득해서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는 행복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는 자는 남의 행복을 위하여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나의 행복은 오로지 증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죽음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것이 별로 없다… 나의 행복은 남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나 자신이 행복하려면 만인이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지상의 양식' 김화영 옮김·민음사) 지상의 양식으로 성숙해진 앙드레 지드의 이 말이 우리 모두의 말이 될 때 우리는 젊은이들에게서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 인간답게 살다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주암·보성댐 연계 전남 가뭄 해결 앞장

기고

김진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장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불과 2년 전인 2020년 역대급 홍수로 인해 고통받았던 영산강·섬진강 유역이 2022년에는 봄 가뭄에 이어 마른장마까지 이어져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한 홍수와 역대급 가뭄을 겪고 있다.

지난해 중부지방은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발생하고 300㎞ 남짓 떨어진 남부지방은 가뭄으로 물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소양강댐의 강우량은 1545㎜로 예년대비 127%인 반면 주암댐은 949㎜로 예년대비 66%에 그쳤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물 공급 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암댐은 작년 8월 말부터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으며 올해 16일 기준으로 저수율 21.9%로 예년의 5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가뭄 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원이 없어 가뭄에 취약하다.

주암댐은 공업용수 비중이 높아 기본적으로 아낄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인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뭄대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암댐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광주·전남 주요 지역인 광주시, 여수시, 목포시, 나주시 등 11개 주요 지자체 285만명의 식수 문제는 물론, 연간 생산액 118조원에 달하는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장기 가뭄으로 인한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작년 6월 가뭄 진입 초기부터 환경부, 지자체, 관계기관, 주민들과 함께 단계별 대책들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각 지자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절수 활동은 물론이고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는 꼭 필요한 물량만 공급하는 등 댐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있으며 이어서 가뭄 장기화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물관리 분야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에너지 분야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간 상생협력을 통해 주암댐-보성강댐 연계운영을 마련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6일에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 간 연계운영을 명문화한 첫 사례다.

당초 보성강댐은 평상시 전력을 생산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중이었으나 가뭄 시 득량만 지역의 농업용수 필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용수를 보성강 본류(주암댐) 방면으로 방류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운영방식 변경에 양 기관이 동의 했다.

양 기관 동의로 오는 6월까지 3000만톤의 물이 주암댐으로 공급, 광주·전남 최악 가뭄 극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이번 가뭄뿐만 아니라 향후 주암댐에 가뭄이 도래하더라도 연계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보성강댐의 발전손실 보상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암댐은 장기적으로 추가 수원을 확보한 효과를 창출했으며 물-에너지 관리기관 간 상생협력을 통해 물 부족 및 에너지 위기를 극복을 위한 긍정적 모범사례로서도 의미가 크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주암댐은 금년도 홍수기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부터 물은 이용의 대상이자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변동성 확대로 홍수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물관리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긴밀한 협조체계와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해 자연재난에 대한 적기 대응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롯데시네마 충장로관

1관	스즈메의 문단속/샤잠! 신들의 분노
2관	스즈메의 문단속
3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플레인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
4관	웅남이
5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팔로우드
6관	스즈메의 문단속 꼬마돼지 베이브의 바다 대모험
7관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 포커페이스/틸
8관	소울메이트/파벨만스 더 퍼스트 슬램덩크
9관	소울메이트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